

Life New

삼성플라자 VIP 멤버십 매거진

JUNE 2008

JUNE 2008 - RM03



www.zegna.com

Ermenegildo Zegna

GREAT MINDS THINK ALIK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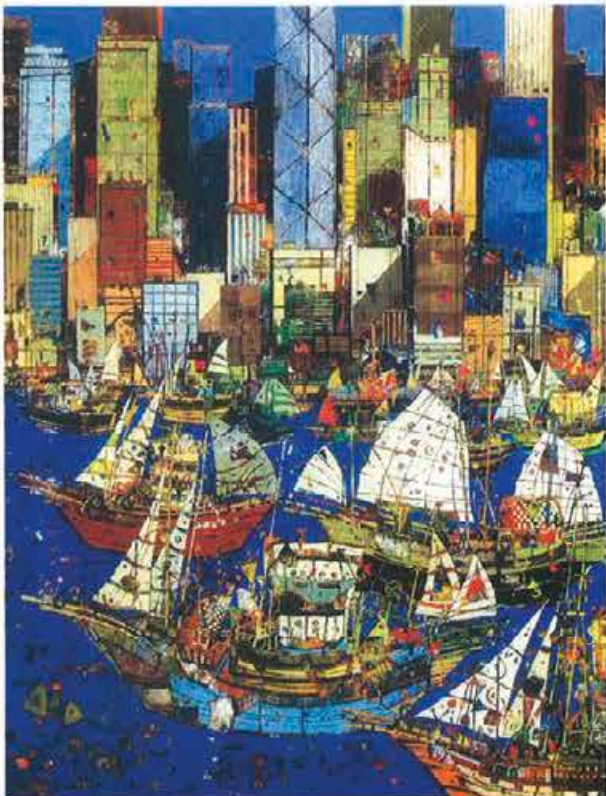
LARRIEU
R

라리유(Larrieu, 1957~)

이번 한국 방문이 세 번째인 라리유는 다른 두 작가에 비해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은 이름이다. 그는 주로 자연을 소재로 하여 현실의 평범한 장면들을 꿈과 환상의 세계로 바꾸어 놓는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11세에 프랑수와 비용 회화 아카데미(Francois Villon Painting Academy)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일찍부터 미술에 두각을 나타냈으며, 13세 때 그의 첫 스승이자 마지막 스승인 로마미술대상 수상자 장 라포르그와의 만남은 그의 인생을 미술로 이끌었다. 이어 18세 때 포 미술관(Musee de Pau) 큐레이터가 그의 전시회에 베아르내 미술관상(Museo Bearnais prix)을 수여할 정도로 성공적인 출발을 보였다. 자신만의 독자적인 화풍을 만들어낼 줄 아는 타고난 재능과, 어린 나이였지만 일찍부터 전시회까지 열었을 정도로 열정과 노력을 보인 덕분에 라리유는 미술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걷기로 결심한다. 오늘날 그 결실은 그의 완성도 높은 작품에서뿐만 아니라, 살롱 도톤느를 비롯하여 프랑스 우수 미술협회의 회장을 연임할 정도의 활발한 대외활동에서 두루 나타나고 있다.

그의 작품은 환화에 넘치는 아름다운 색채와 오묘조밀한 기하학적 무늬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무·산·바다 등 구체적인 이미지를 간직하면서도, 하나의 추상화면처럼 보이기도 한다. 또한 추상과 구상의 경계를 해제하는 환상적인 이미지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꿈과 상상의 세계에 잠기게 만든다.

"제 영감은 피레네 산맥이 감싸고 있는 고향산천에서 얻은 아름다운 풍경과 자연의 색채입니다. 그곳에서 받은 이미지를 화폭에 표현하는 것이 그림 그리기의 시작이었죠." 그의 말을 증명하듯 작가의 작품에는 줄기차게 '나무'가 등장하는데 바로 고향산천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최근엔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자연과 더불어 도시의 삶으로 작품의 주제를 확장하고 있다.



〈전통과 현대의 융합〉, 캔버스에 아크릴, 146x114cm.



〈프로방스의 휴가〉, 캔버스에 아크릴, 80x80cm.